

정보보호, 6월을 기다렸다

일 년 중 정보보호와 관련된 이벤트와 행사들이 가장 많은 시기가 6월이다. 국내 최대 규모로 치뤄지는 정보보호심포지움2009(Symposium on Information Security)을 비롯해 정보보호 대공모전, 그리고 숨은 정보보호 고수들이 벌이는 축제 한마당 해킹방어대회 시상식 등 정보보호 세미나와 각종 시상식이 6월 한 달 간 이어질 예정이다. 5월 13~14일 양일간 개최됐던 제6회 해킹방어대회&KUCIS 컨퍼런스를 중심으로 6월에 예정된 정보보호 행사를 소개해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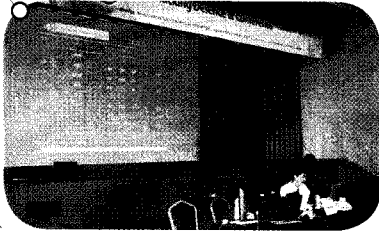
| 정보보호뉴스 취재팀 |

제6회 해킹방어대회 & KUCIS 컨퍼런스

2007년 에스토니아 및 2008년 그루지아 사례는 해킹 및 사이버 공격기술이 국가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려주는 대표적인 사건이다. 이로 인해 적지 않은 국가들이 국가 차원의 사이버 공격에 대비할 수 있도록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노력이 이뤄지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지난 2004년부터 방통위와 KISA가 주최하는 '해킹방어대회'는 정부차원에서 정보보호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매년 개최해 온 대표적인 정보보호 경진대회. 올해 여섯 번째로 개최된 해킹방어대회는 지난 5월 7~8일 예선을 거쳐, 5월 13일 한국과학기술회관 국제회의실에서 본선대회가 개최됐다.

공격보다 '방어!'

해외 해킹대회인 DefCon CTF, Hack in the BOX CTF 등이 '공격'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해킹방어대회는 말 그대로, '방어'에 중점을 둔 대회다. 특히, 올해에는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DDoS 공격 대응'을 주제로 선정, 공격 대응방안을 중점적으로 겨루는 대회로 기획돼 지금까지의 해킹방어대회의 기초를 유지했다. 예선에서는 일반인, 정보보호 대학 동아리, 고등학생 등 184개팀 529명이 참여했으며, 이중 최종 10개팀이 본선에 진출해 자웅을 겨뤘다. 문제 난이도가 예년과 비교해 다소 높아져 참가자들에게는 힘들었다는 후문.



△ '치열한 경합의 현장' <본선대회장 내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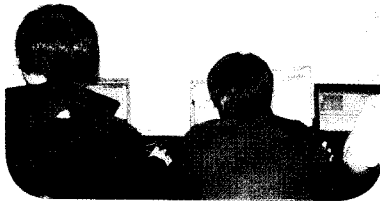
aos	asdf	enejwl	GoN	JAMBa
PLUS	teamX	w0lv3rine	zzzz	@CBaM

△ 본선대회 참가 10개팀

총 상금 1,000만원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개최되는 DefCon 컨퍼런스 참가지원이라는 부상을 걸고 10개팀 35명이 치열한 경합을 벌인 본선대회에서는 오전 10시부터 약 8시간에 걸쳐 진행됐다. 특히, 본선 참가자뿐만 아니라, 대회 참관객을 위한 점수 현황판이 실시간으로 공개돼 보는 이들도 박진감을 느낄 수 있게 했다는 것도 달라진 점. 또, 대학 정보보호 동아리와 유명 언더그라운드 해커 그룹이 본선무대에 섰던 지금까지의 대회와 달리 이번 대회에서는 고등학생 2팀이 포함되는 등 예년과 비교해 세대교체(?)가 이뤄져 눈길을 끌기도 했다. 고등학생 2인조인 'teamX'는 예·본선의 문제가 너무 어렵다고 말하면서도 "앞으로 정보보호와 관련된 업무를



△ '상대방의 깃발을 뺏아라' <Open CTF>



△ '어떤 피해가 있었는지 한 번 볼까?'
<나도 정보보호 전문가>

꼭 해보고 싶다"며 예비 정보보호 전문가로서 당당히 포부를 밝히기도 했다. 한편, 일반적으로 3~4명이 한 팀을 꾸려 참가한 다른 팀과 달리, 홀로 예선을 통과해 본선에서도 치열한 경합을 펼친 'enejwi'은 "단순히 재미로 참가한 것이 여기까지 오게 됐다"며, "다른 팀과 달리 혼자 모든 문제를 풀어야 하는 만큼 쉽지 않겠지만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참가소감을 밝혔다.

다양한 이벤트 선보여

해킹방어대회가 실력자들의 대회였다면 같은 장소에서 치러진 해킹대회 'Open CTF'와 해킹사고 분석을 체험하는 '나도 정보보호 분석가'는 일반 참가자들을 위한 대회. 해킹방어대회 문제보다는 난이도를 낮춰 정보보호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의 참여를 유도했던 기획의도가 큰 호응을 얻으며 예상 밖의 많은 인원이 참가했다.

이번 대회를 총괄했던 해킹대응팀 최종섭 팀장은 "해의 해킹대회와 달리, 공격이 아닌 방어기술로 경쟁하는 해킹방어대회만의 색깔을 유지하고자 했다"며, "매년 참가자가 늘어나고, 일반인들의 호응이 높아, 2010년에도 기대에 걸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해킹방어대회의 입상자에 대한 시상식은 오는 6월 23일 방송통신위원회 KT아트홀에서 거행될 예정이다.

특화된 프로그램으로 승부

한편, 제6회 해킹방어대회와 함께 개최된 KUCIS(대학정보보호동아리 연합회) 컨퍼런스에서는 컨퍼런스 이외에도, 정보보호 세미나, 간이 취업박람회, 이벤트관 등을 운영

해 고등학생과 대학생, 일반인, 공무원 등 다양한 분야 600여명의 참가자들에게 높은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먼저 KUCIS 세미나에서는 KUCIS 동아리가 선정한 8개 주제발표가 진행됐으며, 내용 역시 '정보보호 특기병 입대 방법' 등 일반 정보보호 세미나에서는 쉽게 얻을 수 없는 내용들이 소개됐다. 또한 인턴쉽과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상에 대해 기업 담당자와 상담할 수 있는 간이 취업박람회를 개최해 대학생들의 높은 관심을 받기도 했다.



△ '그런 문제가 있었구나'
<KUCIS 컨퍼런스>



△ '저도 기업 정보보호 전문가가 되고 싶어요' <간이 취업 박람회>



△ '우리의 기술력이 여기까지 왔어요' <KISA 홍보관>



△ '이쁘게 잘 그려주세요' <캐리커처 이벤트>



△ '어디 앓을 데가 없나?' <KUCIS 세미나>



△ '귀여운 뽀뽀와 함께' <KUCIS 운영진>

이밖에도 보호나라, 캐슬, 휘슬 등 KISA 전용 홍보관을 운영하는 한편, 캐리커처 그리기, 온누리 캠페인 홍보 대사 뽀뽀와의 사진촬영 등 다양한 이벤트가 마련됐다.

이번 컨퍼런스 운영과 관련해 KISA 관계자는 "이번 컨퍼런스와 다양한 이벤트는 일반 정보보호 컨퍼런스와 차별화된 프로그램으로 관심을 받았다"고 대회를 평가하며, "향후 지역적인 면을 고려해 대전 또는 부산 등에서 정보보호 컨퍼런스를 개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며 정보보호에 대한 저변확대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보보호 아이디어가 한 자리에, '정보보호 대공모전'



△ 2009년 정보보호 대공모전

미래 사회의 주역인 초·중·고교생과 일반 네티즌을 대상으로 정보보호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건전한 인터넷 이용문화를 전파하기 위한 "2009년 정보보호 대공모전"이 접수를 완료하고 대망의 결과만을 남겨놓게 됐다.

올해로 8회째를 맞는 이번 공모전은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 및 유출의 위험성, ▶해킹 등 인터넷침해사

고 예방의 중요성 및 피해의 심각성, ▶정보보호 실천 방법, ▶118, 1336 등 신고 전화 홍보 등 정보보호와 관련된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포스터, UCC, 디자인 등 총 4개 부문에서 수상작을 선정하게 된다.

대상에는 방송통신위원회장과 부상으로 부문별 100~200만원이 시상되며, 금상은 한국정보보호진흥원장과 50만원의 부상이 제공된다. 이외에도 Daum, NHN, SK컴즈 상 등 7개 분야에서 수상작품을 가리게 된다. 시상식은 오는 6월 23일 방송통신위원회 KT아트홀에서 해킹방어대회 시상식과 함께 거행될 예정이다. 과연 대상을 거머쥔 응모작은 어떤 작품일까.



△ 2008년 금상 수상작품



△ 2008년 대상 수상작품

정보보호심포지움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는 6월 11일에는 국내 최대 규모의 정보보호 컨퍼런스인 제14회 정보보호심포지움 SIS2009가 롯데호텔에서 개최된다.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이 주최하고 국가정보원과 방송통신위원회가 후원하는 이번 심포지움은 '융합서비스 발전과 사이버 안전을 위한 정보보호의 역할'을 주제로 각종 정보보호 전략과 이슈가 논의될 예정이다. 최근 녹색성장과 정보보호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녹색성장위원회 김형국 위원장이 '녹색 성장의 시대와 IT 정책 방향'이라는 주제로 초청강연을 하게 되며, 이후 24개의 발표세션이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올해에는 예년과 다르게 '녹색 정보보호'라는 트랙을 통해 '새로운 브랜드가치, Green Security'와 '저전력·고효율을 위한 정보보호 기술', '스팸 감축을 통한 녹색성장 구현'과 같은 지금까지 생소했던 발표주제들이 눈길을 끈다. 이와 함께 '내부정보 유출방지 관점에서의 보안수준 평가', '균형성과표를 이용한 기업 정보보호 수준평가', '정보보호 수준평가를 위한 정보보호 가중치 산정' 등 정보보호를 경제와 연계하는 발표내용도 소개될 예정이다.

이밖에도 '정보보호 솔루션의 Reconstruction', '정보보호 교습방안', '인터넷 공간에서의 청소년 인권현황과 대응방안' 등 그간 접해보지 못했던 참신한 정보보호 관련 주제도 심도 있게 다뤄진다.

정보보호심포지움은 무료 참가가 가능하며, 오는 6월 5일까지 'SIS 2009 공식 홈페이지(www.kisa.or.kr/sis2009)'를 통해 사전등록이 가능하다. **S**



△ 2008년 정보보호심포지움 전경

